

## 『제8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참가기관 모집

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제8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한국관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및 기관을 모집합니다.

동 박람회는 중국 시진핑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올해 8회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024년 제7회 박람회는 전세계 129개 국가 및 지역에서 3,496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박람회를 방문한 관람자는 약 85.2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도 동 박람회를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돕고자 총 8개기관 74개사로 구성된 한국기업관을 조성하여 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 박람회는 중국을 대표하는 최대 수입 박람회이자 중국 시장의 수요와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플랫폼으로, 우리 기업의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진출을 지원하시는 지자체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다 음 -

### □ 박람회 개요

- 행사명 : 제8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 기간 : '25. 11. 5.(수)~11. 10.(월), 5박 6일
- 장소 : 중국 상해 국가전시컨벤션센터
- 주최 : 중국상무부, 상해시정부
- 주관 : 중국국제수입박람회국, 국가회전중심(상해)유한책임공사
- 규모 : 36.7만㎡
- 특징 : 중국 시진핑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중국의 자유무역 지지 및 대외 시장개방 의지를 대외에 표방하며, 중국을 대표하는 박람회로 자리매김

#### <2024년 제7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최 결과>

- ◇ 전시규모 : 총 36.7만㎡
- ◇ 참가국 및 기업 : 약 129개 국가 및 국제기구, 3,496개 기업, 글로벌 500대 기업 및 업계 선도기업 289개사 참가
- ◇ 바이어 및 관람객 : 약 85.2만 명
- ◇ 계약체결 잠정액(MOU) : 약 1,131억 달러 (상담금액 1.95억 달러)

[제7회 한국관 현장사진]



[제7회 한국관 현장이벤트]



□ 제7회 한국관 관련 언론보도 : 총 90건

○ 국내 언론 : 64건 (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 세계일보, TV조선 등)

<p><b>서울경제</b>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A31면 피플</p> <h3>中 박람회 7년 연속 한국관 꾸린 무협</h3> <p>국제수입박람회 韓 176개사 참가 <b>이인호 부회장</b> “농칠수 없는 시장”</p> <p>한국무역협회(이하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중국 상하이 국가전시컨벤션센터(NECC)에서 개최되는 제7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7년 연속 한국관을 꾸리고 중국 진출을 노리는 국내 기업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p> <p>이 박람회는 중국의 대외 개방 및 수입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진행돼 온 행사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152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3500개 기업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한국관 참가 기업 74개사를 포함해 총 176개사가 참가했다.</p> <p>한국관은 부산·경남·전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조달청 등 3개 기관의 지원 아래 소비재와 식품재를 소개하는 2개의 세부 부스로 구성됐다. 박람회 기간 동안 한국관에서는 K팝 댄스 공연, 네컷 사진 촬영, 달고나 만들기, 한복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돼 제품 홍보 효과를 높였다. 또 무협은 FTA 홍보관도 마련해 한국 참가 기업과 중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중 교역 관련 상담도 제공했다.</p> <p><b>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b>은 현지에서 한국관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간담회</p>  <p><b>이인호(가운데) 무역협회 부회장</b>이 6일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참여한 한국 기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제공=무협</p> <p>에서 “중국의 성장을 둔화와 내수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농칠수 없는 거대 소비 시장이자 주요 수출 대상국”이라며 “이번 박람회 참가가 변화하는 중국 소비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무협은 7일 상하이 현지에서 중국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과 공동으로 “한중 기업 협력 교류회”도 개최한다. 정동-관천수수 등 중국의 대표 기업과 한국관 참가 기업 간 교류 기회를 마련하고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p> <p>허진 기자</p>	<p><b>디지털타임스</b>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010면 산업과학</p> <h3>中 국제수입박람회 참가한 무협 7년 연속 한국관 꾸려 제품 홍보</h3> <p>176개 한국기업 성과창출 지원 <b>이인호 부회장</b>, 양국 협력단 논의</p> <p>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이날 5~10일 중국 상하이 국가전시컨벤션센터(NECC)에서 개최되는 ‘제7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7년 연속으로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p> <p>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의 대외 개방·수입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행사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152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350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무협이 주관한 한국관 참가기업 74곳 등 176곳이 참가했다.</p> <p>무협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4개 지자체·조달청 등 3개 기관과 80여 개국의 2개 한국 상품관(소비재·식품)을 구성했다. 박람회 기간 동안 한국관에서는 케이팝 댄스 공연, 네컷 사진 촬영, 달고나 만들기, 한복 체험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제품 홍보 효과를 높였다. 또 FTA 홍보관도</p> <p>마련해 한국 참가기업과 중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에 관한 상담도 제공했다.</p> <p><b>이인호 부회장</b>은 이번 박람회 기간 중 상하이를 방문 중일지 중국 산둥성 부성장, 위훙훙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부회장과 만나 한중 무역 활성화와 박람회의 후속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p> <p>무협은 오는 7일 상하이 현지에서 중국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과 공동으로 “한-중 기업 협력 교류회”도 개최해 정동, 관천수수, 여러 등 중국의 대표 기업과 한국관 참가기업 간 교류 기회를 마련하고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p> <p><b>이부회장은</b> 지난 4일 상하이 현지에서 개최된 “수입박람회 한국관 참가기업 간담회” 개최사를 통해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내수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농칠수 없는 거대 소비 시장이자 주요 수출 대상국”이라며 “이번 박람회 참가가 변화하는 중국 소비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우진기자 jw17@</p>  <p><b>이인호 부회장</b>이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 KETA 글로벌 이커머스 서밋'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무협</p>
<p><b>전자신문</b>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005면 정치</p> <h3>무협, 中 국제수입박람회서 韓기업 74곳 지원</h3> <p>7년 연속 참가... 2개 상품관 구성 한류 콘텐츠로 다양한 홍보 주목</p> <p>한국무역협회(KITA)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10일까지 중국 상하이 국가전시컨벤션센터(NECC)에서 개최되는 ‘제7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7년 연속으로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p> <p>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의 대외 개방 및 수입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는 행사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152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3500개 기업이 참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무역협회가 구성한 한국관 참가기업 74개사를 포함해 총 176개사가 참가했다.</p> <p>한국무역협회는 부산광역시, 경남도, 전남도, 전북도 등 4개 지자체 및 조달청 등 3개 기관과 함께 870㎡ 규모 2개 한국 상품관(소비재·식품)을 구성했다. 박람회 기간 동안 한국관에서는 K팝 댄스 공연, 네컷 사진 촬영, 달고나 만들기, 한복 체험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제품 홍보 효과를 높였다.</p> <p><b>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b>은 4일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개최된 ‘수입박람회 한국관 참가기업 간담회’ 개최사를 통해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내수시장 침체에도 중국은 여전히 농칠수 없는 거대 소비 시장이자 주요 수출 대상국”이라며 “이번 박람회 참가가 변화하는 중국 소비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백호주기자 ph20@etnews.com</p>	<p><b>세계일보</b>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016면 경제</p> <h3>무협, 中 국제수입박람회에 7년 연속 ‘한국관’</h3> <p>중 176개사 참여 비즈니스 교류 K팝 등 한류 콘텐츠 활용 행사도</p> <p>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지난 5일 중국 상하이 국가전시컨벤션센터(NECC)에서 개막한 ‘제7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7년 연속 한국관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p> <p>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의 대외 개방 및 수입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는 행사다.</p> <p>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상담 등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한국관에서는 K팝 댄스 공연, 네컷 사진 촬영, 달고나 만들기, 한복 체험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한다.</p> <p><b>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b>은 현지에서 송칭지 중국 산둥성 부성장, 위훙훙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부회장을 만나 한중 무역 활성화와 박람회 등을 논의했다. <b>무역협회</b>는 7일 중국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과 공동으로 “한중 기업 협력 교류회”를 열고 중국 대표 기업과 한국관 참가 기업 간 교류 자리를 마련해 양국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백호민 기자 jh@segye.com</p>

○ 현지 언론 : 26건 (증권시보, 경제일보, 중국신문망, 환구망 등)

<p><b>中国贸促会副会长于健龙会见韩国贸易协会副会长李仁浩</b></p> <p>11月5日，中国贸促会副会长于健龙在上海会见韩国贸易协会副会长李仁浩一行。双方就加强两机构间联系交流、促进中韩经贸合作、推动产业链供应链稳定畅通等议题交换意见。</p>  <p>第八届进博会签约企业 韩国贸易协会首席代表 李仁浩：(中国)是韩国最大贸易伙伴，我们不能错过这个大事件，七年来我们每年都参加。</p>	<p><b>韩国贸易协会驻上海首席代表李仁浩表示</b>：韩国贸易协会作为韩国规模最大的商协会已经连续7年参加进博会并开设韩国商品馆，推介韩国名优消费品、食品，今年展馆面积已达870平方米。贵协会组织了14家韩国企业参加本届进博会。韩贸易协会与商务部投资促进事务局共同为中韩企业搭建经贸合作交流平台，务实促进互利共赢。</p> 	<p><b>80家企业及机构签约第八届进博会</b></p> <p>第八届进博会签约企业签约仪式在进博会主会场举行。韩国贸易协会首席代表李仁浩、中国贸促会副会长于健龙等出席并致辞。</p> 	
<p>증권시보(證券時報)</p>	<p>경제일보(經濟日報)</p>	<p>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p>	<p>양시신문(央視新聞)</p>

## □ 전시장 소개

- 중국 상해 국가전시컨벤션센터  
(國家會展中心(上海) / 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Shanghai))
- 개요 : 중국 상해 홍차오에 소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회장
- 규모 : 건축면적 150만㎡, 전시면적 50만㎡(실내 40만㎡, 실외 10만㎡)
- 주소 : 上海市浦崧大道 333 / No.333 Songze Rd, Qingpu District, Shanghai
- \* 상해시 홍차오 공항과는 1.5km, 푸둥 공항에서 2선(徐徑東역)으로 연결되어 있음

### <전시장 이미지>



## □ 한국기업관 전시분야

<p>소비재 (Consumer Goods)</p>	<p>화장품/뷰티제품, 유아용품, 위생용품, 친환경·스마트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 패션/의류, 악세서리/공예품, 스포츠/아웃도어, 반려용품 등 Beauty, Cosmetics and Cleaning products, Green Intelligent Home appliances and Furnishings, Fashion Clothing and Accessories, Sports &amp; Outdoors, etc.</p>
<p>식품/농산품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p>	<p>유제품, 과일/채소/농산물, 종자, 주류, 커피/차/음료, 육류제품, 수산물, 냉동식품, 스낵/디저트/간식, 조미료, 건강보조식품, 펫푸드 등 Dairy products, Fruits, Vegetables and Agricultural products, Crop seed industry, Alcohol, Coffee, Tea and Beverage, Meat, Aquatic products and Frozen foods, Snack foods, Sweets, Condiments, Comprehensive food, etc.</p>

## □ 참가업체 모집

### < 참가업체 모집 프로세스 >



\*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가. 신청자격 : 한국 소재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은 별도 문의)

나. 모집규모 : 약 100개사 내외(소비재관, 식품및농산품관 한국관 조성 예정)

다. 전시부스

- 부스형태 : 독립부스 (한국관 단체관 시공)
- 전시면적 : 1개 부스 당 9㎡ (공용면적 포함)

\* 부스 세부 규격은 확정시 별도 안내 예정

라. 전시품목 요건

-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 중국 수입·통관 금지/제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 첨단기술, 혁신제품, 중국 바이어 선호 제품군 및 세부품목 우대

마. 예상참가비 : 총 7,830,000원

- 임차료: 4,455,000원 (330달러\*9㎡\*1,500원\*100%)
- 장치비: 3,375,000원 (250달러\*9㎡\*1,500원\*100%)
- \* 사업계획 확정 후 별도 공고 예정
- \*\* 환율은 1달러당 1,500원으로 고정(환차익은 환급하지 않음)
- \*\*\* ㎡당 임차료, 장치비 전년과 동일

바. 참가비사항 (1개사, 1개 부스 限) ※ 국고 중복 지원 불가

- 임차료 및 장치비
  - 장치비 포함 비품 : 안내데스크 1개, 테이블 1개, 의자 4개, 선반 3줄 또는  
창고등 1개 중 택일 (종류와 스펙은 디자인 결정 후 통지)
- 공항-호텔-전시장간 이동 셔틀
- 바이어 마케팅 (디렉토리, 영상, 현장 이벤트)
- 바이어 매칭 및 계약체결지원
- \* 상기 지원사항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사. 참고사항

- 전시 분야 관별 참가기관 및 기업 수 미달 시, 해당관에 한국관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관으로 배정 가능

□ 문의 : 중국국제수입박람회 한국관 운영사무국

○ 전화 : 02-6000-8122/1434/8003

○ email:kitaciie@gmail.com